

가마솥 폭염·열대야...사람도 가축도 ‘헉헉’

광주·전남 11일까지 폭염...30도 안팎 무더위 당분간 지속
온열질환 1명 사망, 냉방병에 두통·기침 호소 30% 늘어
전남서 닭·오리 등 16만마리 폐사, 무등산수박 출하량 30% 감소
동물병원 찾는 반려동물 급증...함평만 해역 올 첫 고수온주의보

광주·전남지역에 열흘 넘게 폭염이 지속되고 밤새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병원에는 여름감기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급증하고 있으며, 무등산 수박 등 농작물도 뜨거운 태양에 타 들어가고 있다.

밀식사육을 하는 닭·오리·돼지 등 가축들도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하고, 집 안에 있는 애완동물도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탈진하는 가하면 산책길에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에 발바닥을 데어 치료를 받는 등 동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은 오는 11일까지 강한 일사와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지역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이후에도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름감기 등 온열질환자 급증=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여름 더위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광주 26명, 전남 131명(사망 1명 포함) 등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께 보성군 미력면 들녘에서 낮부터 발일하던 백모

(여·77)씨가 탈진으로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각 병원에는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감기 환자가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다.

우리들내과 김원영 원장은 “냉방병으로 인한 여름 감기는 몸살 기운에 오한·기침 등이 동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오래 간다”면서 “덜더라도 에어컨을 멀리하는 게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동물들도 고통=지난 6일 기준 전남 240농가에서 16만 2197마리의 닭·오리·돼지가 폭염으로 폐사했다. 전남도는 밀식사육 등을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축사 온도 낮추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야생동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일 오후 광양시 중동 부두 인근 공장에서 야생 족제비가 탈수 증상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공장 관계자들이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다.

폭염 때문에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동물도 급증하고 있다.

폭염에 산책을 나갔다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히거나, 혼자 집에 있다가 탈진한 반려견이 동물병원으로 긴급 호송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출하 앞둔 무등산 수박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금곡동의 한 밭에서 무등산수박작목반 회원이 10일 출하를 앞두고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사람보다 기초 체온이 높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더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에는 산책을 피해야 하며, 해가 진 뒤라도 뜨거워진 지열에 의한 발바닥 화상 피해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조 비상, 타들어 가는 농작물 =해양수산부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함평만 해

역에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주의보는 바다의 온도가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적조 발생 등으로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적조 발생 우심해역 60개 지점에 대해 주 2회 정기예찰과 수시예찰을 하고, 기동대응반 운영을 통한 방제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작물도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 폭염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다.

무등산 수박 생산조합 관계자는 “장마 후 갑자기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박이 적을 못한 것 같다”며 “올해 수확량을 당초 3000톤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확량은 이보다 20~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지난 설 연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중 순직한故 윤한덕 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한 데 이어, 이 안건이 8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 센터장은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의대 응급의학과가 생긴 지난 1994년 ‘1호 전공의’로 자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됐다.

이후 2002년 중앙응급의료센터 창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2년 7월 센터장으로 취임한 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체계 정립,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설 연휴도 잊고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 행정동 2층 중앙응급의료센터장실에서 순직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후 전남대 의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랐다.

장병관 의원에 국회 정무위 보훈처 회의에서 윤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대 총동문회와 전남대 의대 동문회는 장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나주시, SRF 사용승인 신고 행정처분 지연은 위법”

연료 승인·사업 개시 청구는 기각

나주시가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1년 6개월 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보완 요구 등도 하지 않고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극적 위법을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나주시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신고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로 예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고를 연기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나주시의 부작위 위법판 판단하는 소송이며 거버넌스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

다. 이 시설은 전남 3개 권역인 목포·신안·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집단 민원에 막힌 발전소는 2년째 가동이 중단됐으며,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정부·지자체·난방공사·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 거버넌스는 오는 12월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참여자치 21 ‘춤 허용업소’ 조례 특혜의혹 수사 촉구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코요테 어글리’ 클럽 붕괴사고의 발단으로 지목되는 광주시 서구·북구 ‘춤 허용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 주류유통업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광주일보 2019년 8월8일자 6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21은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특혜 의혹이 있는 ‘춤 허용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례를 제정한 서구와 북구는 물론,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동구지역 구의회도 몰입 로비 대상이었다”며 “경찰은 조례 배후로 새롭게 추가 지목되고 있는 주류유통업계 로비 의혹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어 “업계 뿐만 아니라 서구·북구·동구 의원 등 로비 의혹 당사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해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울 전남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첫 사망

8일 울 들어 전남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이날 현재까지 6명이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50대 남성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숨진 환자는 당뇨

및 간경화를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일 구토, 어지러움 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증상이 악화돼 3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5일 숨을 거뒀으며, 8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계위 회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남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미혼인 여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자체 징계위원회에선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중징계 의견을 달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것.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

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는데, 도교육청은 “성 관련 비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유지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육부장관상
시·도 교육감상 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No Bullying, Yes Bling!**

제8회

청소년축제

2019. 08. 17(토) 10:00 ~ 19:00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안내

모집분야	대 상	모집기간
공연예술분야 (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참가비 무료)	8월 13일(화) 까지

문의전화_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010.7174.1257
자세한 사항은 **NAVER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_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_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